



3개월 남은 21세기를 준비한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21세기가 정부의 공식적 발표로 2000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001년부터라는 설도 있었으나 이제 3개월 후면 21세기가 정식으로 시작된다. 많은 것이 변하고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되지만, 21세기에 지식산업, 정보산업, 문화산업이 각광을 받으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의 발전 없이는 이러한 모든 것이 유지될 수 없다.

북한땅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먹거리 문제중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이다.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값싸게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지만 사람에게 대한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아 사용에 논란이 되고, 우선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은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축산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항균물질의 사용과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아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이다.

최근 EU에서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내성

균 발생으로 일부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는 등 세계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양권에서도 일본, 홍콩 등지에서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발견되어 이미 사람이 죽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21세기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다. 얼마 전 다이옥신 파동의 위력을 보아 왔지만 안전성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병의 근본 치유보다는 즉각적으로 증세가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력한 항생제 사용으로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건강에 불리하지만 항생제 천국으로 불릴 만큼 남용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각성제 섞인 드링크제가 잘 팔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 안해도 병명을 알아 맞추고, 한번에 왕창 투약으로 증상이 소실되면 명의 소리를 듣는다. 사람도 이런데 가축에게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미국 양돈 생산자 협회가 돼지고기 품질

미국 양돈 생산자 협회가 돼지고기
 품질인증제도를 (PQA프로그램) 실시하고, 우리나라도 이의
 도입으로 새로운 천년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어 준비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역, 위생문제와 이에따른 사양관리와
 철저한 기록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인증제도를 (PQA프로그램) 실시하고, 우리나라도 이의 도입으로 새로운 천년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어 준비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역, 위생문제와 이에따른 사양관리와 철저한 기록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간 양돈산업은 정부의 행정에 의존하였고, 정부의 축발기금에 의존하였지만 21세기에는 이러한 기초부분이 토양에 뿌리 내려 양분을 뿌리로 빨아 올려 무성하게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즉 뿌리는 의식구조인데 뿌리의 기능이 양분을 빨아올리는 것 외에 나무가 자리잡고 지탱하게 하는 것이다. 나무가 자립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국산 돼지고기가 안전하다는 의식이 소비자에 뿌리 내리면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축산업 자조금법이 통과되어 21세기부터는 스스로 자립해 나가는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자조금 문제는 8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미국에 시찰단이 다녀오는 등 추

진되었고, 1989년 농발법에 현행 자조금 제도가 입법되었다.

자조금이라는 말이 한글사전에도 없을 때 법률에 자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도 양축농가들의 노력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간 자조금에 대한 사회적 문화수준, 의식구조, 가치관, 자조금에 대한 훈련이 안되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였으나, 이제 10여년의 세월과 훈련을 거쳐 여건이 성숙되어 21세기부터는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

자조금이 형성되면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이를 위한 방역위생에 투자가 되고, 이렇게 품질이 인증된 돼지고기를 수입육과 차별화하는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유통·소비 구조의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로의 개편이다.

덴마크처럼 협동조합 체제가 바람직 하지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들이 대기업 주식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닮아가는 것은 조심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3개월 남은 21세기 준비에 더욱 매진할 때이다. **양돈**